

21 세기를 향한 京畿大學校의 미래

朴 魯 禹
(京畿大 總長)

1. 沿革과 現況

본 대학교는 조국광복 직후인 1947년 조양보육사범학교로 건학되었다. 그 후 조양보육초급대학('54년), 경기여자초급대학('55년), 경기초급대학('57년), 경기실업초급대학('62년), 경기대학('63년), 경기대학교('85년)로 확장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40년간의 역사를 쌓아오면서 조국발전과 그 발전의 궤도를 같이 해왔다.

본교가 건학할 당시는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되어 사회적 혼란의 와중에 놓여있을 때인 바, 신생독립국가로서 국가발전을 추구함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일제의 우민화정책의 틀을 벗어버리고 백성을 일깨워 조국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양성하여 민족자립을 지향하는 自主敎育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자각 아래 학교법인 경기학원을 설립하여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왔다.

그동안 국가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증건 및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급증하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63년 12월 정규 4년제 대학으로 승격·인가되어 오늘의 경기대학교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급속한 경제발

전을 통하여 근대화를 실현하려는 국가적 시책에 부응함으로써 공업화·산업화를 주도할 인재양성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이었으며 아울러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이공학계열, 관광학계열 및 예능·체육계열 각 분야를 개설하여 각 분야간의 연계적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大學敎育의 內實化를 추구하려는 자체적 노력의 표현이었다. 특히 1962년에는 관광한국의 미래상을 예견하면서 국내 최초로 관광과를 설치하였고, 이를 다시 관광경영학과와 관광개발학과로 개편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왔다. 이들이 관광 일선에서 외화획득을 통한 경제입국에 공헌하며 나아가 한국 관광학의 정립·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이처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주력하면서 내실을 다져오던 본교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수원 캠퍼스로의 이전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지역간 격차문제와 도시인구집중이 국가적 해결과제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른 정부의 대도시 인구분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자 본교는 당시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현 수원시 이의동)으로 이전을 결정하였고 1979년부터 모든 주간 개설학과를 현 수원 캠퍼

퍼스에서 모집하여 이미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즉, 다른 대학이 서울에 본교를 두고 지방에 분교를 설치·운영하던 시류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대학운영의 능률을 향상시켜 대학발전을 가속시키는 동시에 대도시 인구분산 정책에 솔선하겠다는 대학의 의지를 실천적으로 표시하여 왔다.

1982년 2월 대학본부를 수원 캠퍼스로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가 강화됨은 물론 명실공히 경인지역의 우수한 대학으로서 그 이미지를 확고하게 인식시켜 오고 있다.

한편, 서울 캠퍼스는 산학협동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의 직장 근로자들에게 학문탐구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보다는 나은 자질을 갖추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夜間課程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증가에 부응하면서 대학의 질적 발전을 주도할 大學院을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인재양성과 학문연구의 전당으로서 대학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대학교의 역사적 발전은 오늘에 이르러 7개 대학 56개 학과에 만여 명의 재학생과 대학원 석사과정 21개 학과, 박사과정 15개 학과, 행정대학원 4개 학과, 경영대학원 5개 학과, 교육대학원 11개 학과, 산업정보대학원에 6개 전공영역이 설치되어 규모 면에서 국내 어느 대학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새로운 명문 종합대학교로 성장하였다.

2. 教育目標 및 方向

본교는 우리나라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여 학생의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대학은 이와 같은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眞·誠·愛를 건학이념으로 삼아 대학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眞'은 우주와 자연의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는 길인 동시

에 자신을 거기치 않는 참된 인간으로 승화시키는 길이다. '誠'은 성실 근면한 인도를 닦아 자주 능력을 기르고, 자신과 제 3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낄 줄 아는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한다. '愛'는 타인을 받아들일 줄 아는 포용력을 갖게 하고 민족과 국토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인류애를 최대의 목표로 삼는다.

그 결과 올해로 건학 45주년을 맞는 본교는 그간 학사 18,237명, 석사 297명, 박사 34명을 배출하여 현재 국내외 각계 각층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의 유능한 역군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발전은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교는 전체적인 교육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수립해 놓고 연구·교육·봉사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종합 캠퍼스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研究 기능의 활성화이다. 대학의 기능 중에 중요한 부분은 교수의 연구 기능에 있다. 학교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학술·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연구교수제·초빙교수제의 운영, 교수 해외 연구기회 확대, 교내 부설연구소의 연구활동 강화와 연구비 지원을 통해 연구 분야를 활성화한다.

둘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敎育與件 개선이다.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의 효율화,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 성적평가 및 성적관리의 합리화, 관리정보 체계의 확립과 학사행정의 전산화, 실험·실습실의 확충, 도서관 시설의 확충 등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특히 선진 공업화 정책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본교는 이공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투자하고 있으며, 이공대 실험·실습 전용건물(2,285평)을 '92년도에 완성하여 모든 실험기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부속기관으로 중앙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셋째, 奉仕 기능의 확대를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각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배출한다. 특히 본 대학의 경우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산업협동체제 강화, 농촌 봉사활동 등을 통해 地域社會와의 유대를 강화

하고 공동발전을 기하고자 한다.

3. 發展計劃의 基本方向

본 대학의 발전 계획은 2001년까지의 未來像을 설계하는 데 기본 취지를 둔 것이다. 따라서 경기대학교의 미래를 창조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본 발전계획의 원칙과 기본적인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사회현상은 확대발전이 지속될 것이며,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도 크게 변화되고 多樣化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는 급격한 開放化를 통한 국제사회로의 획기적인 진출과 역할의 증대가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은 급변하는 국내외적인 환경여건의 創造的 대응과 適應力의 제고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내의 대학에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말뚝을 하는 기본 구상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둘째, 건학이념의 정립과 이의 실효적 구현을 통하여 대학의 본질을 확고히 하는 것은 인간형성의 과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大學의 建學理念은 대학의 이념적인 기능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경기대학교

의 건학이념은 진·성·애로 정립되어 있다. 그러나 이의 개념에 대하여 현저한 구멍이 부족하였음은 물론, 이에 대한 實效性 있는 具現方案도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대학교는 대학의 건학이념 재정립과 이의 구현방안에 대한 모색 등을 통하여 경기대학인으로서의 인간형성의 기반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셋째, 수원과 서울로 분리되어 있는 양 캠퍼스는 상호간의 特性的 發展을 도모한다는 단기적인 측면의 고려가 불가피하였다.

대학의 캠퍼스가 서울과 수원으로 양분되어 있음으로써 캠퍼스의 운영·관리상 많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들 양 캠퍼스는 지역적인 특수관계로 말미암아 상호간 특성 있게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들 양 존재체가 궁극적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향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이들의 양존적인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발전모형을 전제로 하였다.

4. 發展計劃의 構成

본 대학의 발전계획은 학문과 연구를 주축으

▼ 眞·誠·愛의 건학이념 再定立을 바탕으로 京畿大의 未來像을 창조하고자 한다(사진은 수원캠퍼스).



로 하는 대학에 적합한 環境과 與件이 조성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학 캠퍼스의 규모는 주로 학생수와 학과수에 따라 외형적인 것이 결정되며, 학과와 학생수는 근본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양성의 측면인 내면적인 것이 고려되었다. 본 발전계획은 학사계획, 대학행정계획, 시설 및 공간계획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1) 學事計劃

대학의 학사관계를 정립하는 의미에서 학사계획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① 大學教育 均衡發展을 위한 규모의 확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센터로서 지역 주민의 교육적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학생수 보유, 고급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 대학교육의 확충 등을 추진한다.

② 교육의 質的 向上을 위한 教育與件의 개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과정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교육향상의 기반을 마련하고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교육발전을 위한 研究·開發 체계의 강화
연구·개발 체계의 조성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학술진흥업무를 강화하며 교육·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한다.

④ 專門大學院 확충과 博士學位課程 지원

2) 施設 및 空間計劃

캠퍼스의 공간 활용에 관한 물리적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발전 방향과 대학 운영에 관한 未來像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되는 學事教育計劃(academic plan)을 전제로 하여 입안된다.

부언하면 이는 아카데미 플랜의 해석을 토대로 공간수요와 입지 요구조건을 규명하여 현실적인 캠퍼스 부지 조건에 적합하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物理的 計劃은 그 첫 단계로 아카데미 플랜에 의한 대학활동의 유형을 연구·검토하여 앞으로 대학내에 수용할 소요시설을 도출하는 근거를 정립하여야 한다. 다

음 단계는 수용할 시설들의 조직화를 위한 시설조직의 기본틀에 대한 방침을 정립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대학활동 운영의 기본체계가 확립되고 동시에 장래의 대학성장에 대한 질적·양적 문제의 대책 방안이 수립되어야 이를 근거로 시설조직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는 현재의 캠퍼스 공간에 대한 시설활용 현상 조건과 토지 자체의 제반 여건을 분석하고 동시에 계획시설들의 소요공간 규모를 예측하여 추가 소요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판단하고 이들의 건설을 위한 입지적 타당성을 연구·검토하게 된다. 넷째로는 현실적으로 건설 가능한 공간구성 방안을 강구하되, 시설조직화 체계와 현존 캠퍼스 부지조건에 적합한 몇 개의 대안적 계획방안을 강구하여 이들 안을 평가·검토하고 최적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최적의 개념계획안을 토대로 계획과 설계를 발전시켜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건설집행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5. 맺음말

본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속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 長期發展計劃(1988~1997)을 마련하여 질적·양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고르게 발전할 때 참된 대학교육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본교의 교육이념인 眞·誠·愛의 실현을 위해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헌신 노력하고 있다. 교수들의 창의적 연구활동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뒷받침할 대학행정 지원이 병행되어 가고 있으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캠퍼스 전체의 개발과 공간배치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본교의 教育的 實踐 意志의 실현을 위한 신념이며, 날로 변화해 가는 사회에 적응하고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며 임무인 것이다.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대학발전 계획에 입각하여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하고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